

46 | 방역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기타 살충제 중독작용, 말초신경병증

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방역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C는 2007년 2월부터 고철을 살충제로 소독하는 방역원으로 근무하였다. 2007년 6월경부터 정신이 몽롱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났으며, 2009년 5월 퇴사 후 정밀검진한 결과 기타 살충제중독작용, 말초신경병증으로 추정진단되었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C는 A사에 2007년 2월에 입사하여 항구 고철 하역장에서 살충제로 방역을 하는 작업을 하였다. 방역작업시 사용하는 살충제들의 MSDS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피레드린, 피레드로이드계로서 근로자 C의 증상과 연관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피레드로이드계 살충제 등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사례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고철 소독 작업은 옥외작업으로서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노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방역작업이 하루에 3회 이루어지며, 1회 작업시 평균적으로 2-30분이 걸리므로 하루 살충제를 사용하여 방역작업을 하는 시간은 총 90분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사용하던 물질들의 MSDS 상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갖추어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지는 않았으나, 호스 등을 이용하여 살충제를 뿌리는 작업을 하므로 보호구의 미착용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살충제에 중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3 | 의학적 소견

본 근로자는 약 3년간 방역작업을 한 후 2009년 5월 퇴사하였고 과도한 피로감, 졸림, 기억력저하, 성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병원 신경과의 진단 결과, 우울경향이 뚜렷이 관찰되며, 경도인지장애로 인지장애의 영역은 기억력저하 및 다발성에 해당된다. 또한 비뇨기과에서는 신경인성 및 혈관성 발기부전으로 진단하였다. 기타 살충제 중독작용 및 말초신경병증은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를 참조하여 다른 의원에서 기재한 것으로 두 가지 상병 모두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의 추정진단명이라 할 수 있다. 작업환경 검토 결과 많은 양의 살충제에 중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현재까지 근로자 C가 사용한 살충제들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이 보고된 적은 없으며, 고철 소독 시 사용한 살충제들은 59배~500배의 희석을 하여 사용한 것이라, 단기간 노출에 의해 중독작용 및 말초신경병증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 | 결 론

- 근로자 C는 기타 살충제 중독작용, 말초신경병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으나
- ① 근무 당시 사용한 살충제들은 피레드린, 합성 피레드로이드계 살충제로써 현재까지 사람에게 역학적으로 말초신경병증을 야기한다고 밝혀진 적이 없으며,
 - ② 보호구를 잘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으나, 노출추정량이 적고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많은 양의 살충제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므로,

근로자 C의 추정 진단명으로서 기타 살충제 중독작용, 말초신경병증은 노출된 살충제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